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SEPTEMBER 2017

www.gwangjufc.com



PREVIEW

광주에 필요한 것은 오직 승리

MANAGER

광주 구할 학범슨 매직 개봉박두

SHOPPING

광주FC쇼핑몰에 어서오세요!



필요한 것은 오직 승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벼랑 끝까지 몰렸다.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다. 광주FC가 9월에 대대적인 반격으로 위기 탈출에 나선다.

광주의 지난 8월은 너무 힘든 일정이었다. 시즌을 보내면서 최악의 결과를 냈다. 7월의 마지막 경기였던 전남 드래곤즈전 2-1 승리로 8월을 기분 좋게 맞이했지만 지난 9월 2일 제주 유나이티드전까지 5경기의 결과는 모두 패배였다. 한 달 동안 승점 1점도 얻지 못하고 무너진 적은 없기에 충격은 컸다. 이로 인해 남기일 감독이 사퇴하고 김학범 감독이 새로 취임하며 분위기 일신에 나섰다.

연패로 순위도 결국 강등권인 12위로 떨어졌다. 이제 올 시즌 남은 클래식 경기는 11경기다. 최대한 많은 승점을 획득해 클래식에 잔류할 수 있는 10위 이내에 진입해야 한다. 현재 승점 19점인 광주는 10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26점)에 승점 7점이 뒤져 있다. 광주가 인천보다 3경기를 더 이겨야 뒤집을 수 있다. 쉽지 않은 추격전이다.

하지만 9월은 추격할 수 있는 호재다. 광주는 9월 10일 인천 원정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승점 차는 4점으로 단번에 좁혀진다. 그렇게 되면 뒤집기를 위한 반격도 가능해진다. 광주는 다른 경기는 생각하지 않고 인천을 이긴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인천전 다음에는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11위인 상주 상무(승점 25점)와의 맞대결이다. 인천을 상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주전 승리도 승점 차를 좁히는 기회가 된다.

광주는 이 두 팀을 상대한 뒤 FC서울, 강원FC와 홈 2연전을 치른다. 서울, 강원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천, 상주전이다. 게다가 인천, 상주와는 10월 이후에 치러지는 스플릿 라운드에서 또 한 번 만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승점 차를 좁히고, 순위를 올리는 발판도 만든다. 광주에 9월은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이다.

광주FC 9월 경기 일정

9월 10일	18:00	vs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
9월 16일	19:00	vs 상주 상무	원정
9월 20일	19:00	vs FC서울	홈
9월 24일	19:00	vs 강원FC	홈

광주를 구할 학범슨 매직 개봉박두

K리그 클래식 잔류에 사활을 건 광주FC에 새로운 선장이 취임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명장 김학범 감독이다.

김학범 감독은 전임 남기일 감독의 뒤를 이어 광주 지휘봉을 잡았다. 시즌 중 팀을 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김학범 감독은 다르다. 풍부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

김학범 감독은 대표적인 지략가다.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유명한 알렉스 퍼거슨에 빗댄 '학범슨'이라는 별명도 잘 알려져 있다. 김학범 감독의 지도력을 표현한 별명이다.

김학범 감독은 2006년 성남 일화(현 성남FC)를 K리그 정상에 올려놓았다. 또한 2012년에는 시즌 중반 강원FC에 부임해 강등권 위기에 처했던 팀을 잔류시켰다. 2014년 여름에는 다시 성남 감독을 맡았고 그해 성남을 FA컵 정상에 올려놓았다.

또한 김학범 감독은 선진적인 전술, 전략을 펼친다. 2006년 성남 감독 시절 사용한 4-3-3 포메이션의 경우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참고했을 정도다. 포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술을 펼치며 전술의 완성도도 매우 높다.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압박 축구도 펼친다. 이는 김학범 축구의 기본 틀이기도 하다. 밤을 새서 상대의 약점을 분석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학범 감독의 매직은 이러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김학범 감독은 "광주는 굉장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 선수들을 믿는다. 선수들이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위기를 이겨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강등권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선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비 기간 없이 광주를 맡은 김학범 감독은 9월 A매치 휴식기간을 통해 선수들을 본격적으로 지도한다. K리그를 평정했던 김학범 감독의 매직도 9월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학범 감독을 도울 베테랑 코칭스태프

송명원 수석코치, 배효성 코치, 박철우 골키퍼코치가 김학범 감독을 보좌한다. 세 명의 코치들은 모두 김학범 감독과 인연이 있다.

송명원 수석코치는 성남 스카우트와 수석코치로 활동했다. 또 2010년에는 동의대 감독을 맡아 2012년 U리그 영남 1권역 우승을 이끌었다. 송명원 수석코치는 광주 선수단을 한데 모으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베테랑 수비수 배효성은 강원에서 김학범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선수들 중심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박철우 코치는 여러 프로팀에서 골키퍼를 지도했고, 2013년에는 U-20 월드컵 대표팀 코치로도 활약했다.



‘특급 신인’

나상호 활약에 광주는 반전 꿈꾼다

특급 신인 나상호(21)가 뒤늦게 골맛을 보며 후반기 클래식 잔류 드라마를 쓰려는 광주FC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나상호의 컨디션은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지난 8월 9일 수원 삼성과의 FA컵 8강전에서 도움과 함께 프로 데뷔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10일 뒤인 8월 19일 전북 현대와의 K리그 클래식 원정 경기에서 동점골로 데뷔골까지 신고했다.

김학범 감독은 “나상호는 움직임에서 좋았다. 득점력을 항상 시키는데 좋은 선수인 것 같다. 후반기 득점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구나 후반기 광주의 상승세의 핵심 열쇠로 꼽기까지 했다.

나상호는 “전북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지만, 잠깐 기뻐다. 승점이 필요한 경기이기에 다시 시작해야 한

다”라며 기쁨을 잠시 접어뒀다. 현재 클래식 잔류가 절실한 팀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광주 유스팀인 금호고 출신으로서 고교 시절에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선수로 맹활약했다. 그는 단국대를 거쳐 올해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좋은 재능을 갖춘 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건 당연했다.

그러나 부상이 문제였다. 동계 전지훈련 때 발목 부상으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프로에서 필요한 체력, 경기운영, 템포를 익히는 데 문제가 됐고, 그만큼 프로에서 활약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상호는 서두르지 않고, 몸을 회복하며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수원전에서 조주영의 선제골 도우며 감을 찾았다. 이어 전북을 상대로 넣은 득점뿐 만 아니라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몸이 많이 올라왔는데, 수원전이 기점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원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몸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잔류 청부사인 김학범 감독의 부임과 동시에 선발 출전과 맹활약으로 앞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는 물론 나상호에게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나상호는 “감독님의 카리스마는 소문으로 많이 들었다. 유쾌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다. 감독님이 이런 커리어가 있으니 선수들도 믿고 열심히 하고 있다. 전북전은 ‘하고 싶은 데로 하라’고 자신감을 심어 주셨는데, 골과 함께 좋은 활약으로 이어졌다”라며 김학범 감독의 믿음에 감사했다.

최근 활약과 데뷔골만으로 기뻐할 수 없다. 나상호의 시선은 팀의 잔류다. 공격이 다소 약한 광주를 살려내야 하는 점에서 그의 각오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상호는 “어려운 시기에 감독님이 오신 후 잔류를 향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팀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서 잔류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맥긴, 북아일랜드 대표로 월드컵 유럽예선 출격

광주FC의 북아일랜드 출신 공격수 나이얼 맥긴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예선을 위해 출격했다.

지난 7월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광주로 이적한 맥긴은 9월 A매치 기간을 맞아 북아일랜드 대표팀에 소집됐다. 맥긴은 광주에 입단하기 전까지 북아일랜드 대표로 A매치 50경기를 뛴 공격수다.

맥긴은 월드컵 예선 7차전 산마리노(9월 2일)와의 경기에서 후반 32분 교체 투입되며 북아일랜드의 3-0 승리를 도왔으며, 8차전 체코(9월 5일)와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다.

북아일랜드는 현재 C조 선두 독일에 이어 2위에 올라있으며, 3위 체코와의 승점이 10점차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했다.



광주의 전력 보강! 군입대 4인방 컴백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는 이때, 광주FC가 전력을 강화한다. 2년 전 군입대한 4명의 선수가 순차적으로 전역해 복귀한다.

9월 13일에는 상주 상무에 입단한 제종현, 정준연이 전역해 복귀한다. 10일 뒤인 9월 23일에는 아산 무궁화에서 군생활을 한 임선영, 안영규가 광주 유니폼을 다시 입는다. 이들은 복귀와 함께 곧바로 선수 등록을 해 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네 선수는 입대 전 광주의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제종현은 2014년

빼어난 선방으로 광주의 클래식 승격을 이끈 주역이었다. 정준연은 꾸준히 광주의 후방을 지킨 노련한 수비 자원이다. 안영규도 수비수로서 든든하게 광주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멀티 플레이어’ 임선영은 입대 전 광주의 핵심적인 선수로 활약하며 공격, 수비 다방면에서 헌신했다.

광주는 이들의 가세로 전력을 강화하며 클래식 잔류를 위한 발걸음도 더욱 가벼워졌다.



안영규



임선영



정준연



제종현

광주FC 쇼핑몰이 싹 달라졌습니다!

광주FC가 2017시즌 후반기를 앞두고 새로운 구단 상품들을 출시했다. 선수들이 착용하는 홈, 원정 유니폼은 기본이고 응원용 머플러, 사인볼도 새롭게 내놴다. 또한 광주의 야심작인 옥스포드 블록은 모든 팬들의 사랑을 받을 상품이라 자신한다.

광주의 구단 상품은 현장 구매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장 판매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남문매표소 앞에 설치된 부스에서 한다.

2017 광주FC 니트 머플러



정가 24,000원 → 현장 할인 18,000원

광주FC 보조 배터리



정가 23,000원 → 현장 할인 18,000원

2017 광주FC 페넌트



정가 28,000원 → 현장 할인 20,000원

광주FC 장우산



BLACK



WINE

정가 24,000원 → 현장 할인 20,000원

광주FC 옥스포드 블록



정가 30,000원 →
현장 할인 24,000원

광주FC 우드 탁상시계



정가 19,000원 → 현장 할인 16,000원

2017 사인볼



정가 15,000원 → 현장 할인 12,000원

광주FC 텀블러



정가 28,000원 → 현장 할인 20,000원

광주FC 소이 캔들



정가 14,000원 → 현장 할인 12,000원



감독 김학범

1960.03.01



수석코치 송명원

1961.01.10



필드코치 배효성

1982.01.01



골키퍼 코치 박철우

1965.09.29



피지컬 코치 후비오

1967.03.13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FW 완델슨

1992.05.31 185cm/80kg



MF 이우혁

1993.02.24 184cm/69kg



MF 맥긴

1987.07.20 178cm/73kg



FW 나상호

1996.08.12 173cm/70kg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DF 이순민

1994.05.22 178cm/72kg



FW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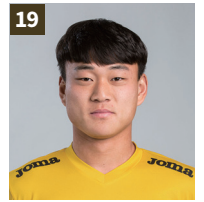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DF 정동운

1994.04.03 175cm/70kg



FW 이종서

1995.06.09 175cm/73kg



DF 이한도

1994.03.16 185cm/80kg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FW 정영태

1992.06.24 180cm/70kg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MF 임대준

1994.05.04 177cm/70kg



DF 황인혁

1995.05.06 191cm/77kg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MF 여봉훈

1994.03.12 178cm/70kg



DF 김지수

1994.08.16 177cm/70kg



GK 윤평국

1992.02.08 189cm/8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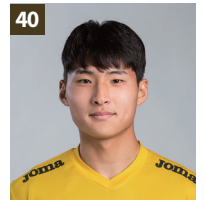
MF 본즈

1990.02.07 187cm/80kg



DF 김상원

1992.02.20 176cm/71kg



DF 정호민

1994.03.31 188cm/79kg



GK 박형민

1994.04.07 189cm/80kg

광주FC SNS 채널



@GWANGJU_FC



gjfc2010



카톡 플러스친구 '광주FC'



gwangju_FC

2017시즌 홈경기 일정

NEXT



9월 20일(수)
19:00



vs FC서울

9월 24일(일)
19:00



vs 강원FC

10월 8일(일)
15:00



vs 울산 현대